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정기국회 전운 고조

민생법안 등 곳곳 대치 전선

28~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원내사령탑 전략 대결도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버리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날린 영빈관 신축 문제의 경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했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여진은 이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19일 뽑히는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처음 진두지휘하는 무대로, 여야 원내사령탑간 전략 대결도 주목된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험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부활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업적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엄호' 하고 나설 전망이다.

당초 14~15일로 예정됐다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교체를 고려해 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련 포인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민주당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안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서 현재 남비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대어 공세 소재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영·미·캐나다 3개국 첫 순방

런던 장례식서 '조문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번째 해외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은 바 있다.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 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 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방진영 정상급 인사들의 '여왕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유엔총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원장 임명

청문보고서 없이 12번째 강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통상 임명 재가와 임명장 수여식에 시간적 간격을 뒀는데, 다소 신속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총장·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14~15일 이틀간 짧게 설정하기도 했다. 법률상 열흘 내 임의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순방 이전 임명을 염두에 둔 통보였다.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에 12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



이원석 한기정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연합뉴스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해야”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메시지 “한반도 평화·비핵화 겨레 숙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글을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반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9·19 군사합의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둔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외교·안보 관련 메시지는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날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